

절름발이 정권

데스크 칼럼



박상준
정치부장

파5 홀에서 두 손에 성공한 골퍼들이라면 '버디' 이상의 결과를 당연히 기대한다. 이후 퍼팅을 4개 이상 해 파 세이브까지 놓치게 된다면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최근 골프를 함께 친 의사는 '파5 투 온' 성공 이후 퍼터 미스로 보기를 기록한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들(의사) 사회에서 그런 상황은 '수술은 잘 됐으나 환자는 사망한 케이스'라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만남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수술은 잘 됐는데 환자는 죽게 생겼다'고. 대선에서 가까스로 승리했으나 여권의 상황이 녹록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 상황은 풍전등화 같아 보인다. 물가는 치솟고 경제는 안팎으로 나아질 소식은 없는데, 역병과 재해로 시름하는 국민들의 눈총은 오롯이 여권을 향하고 있

다. 경제 회생을 위한 드라이브를 어느 때보다 강하게 걸어야 하지만 0.73% 포인트 표 차이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거대 야당에 막혀 주관대로 국정을 진행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국무총리와 두 명의 부총리를, 퇴역한 인사를 다시 차출하거나 원내에서 꼬집어낼 정도로 인재풀이 넉넉지 않지만 거대 야당엔 이마저도 공격 대상이다. 장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한편 합동게 들어놓은 장관마저도 해임시키려 간간하다. 이런 식이라면 현 정권은 일 지체를 못 할 수도 있다. 지난 대선이 '1차 수술'이라면 다음 총선을 '2차 수술'로 보는 여론의 시선이 지배적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벗어나 국회에서 뒷심을 발휘해야 윤 정부의 성공 초석이 마련된다는 계산에서다.

총선의 핵심은 공천이다. 공천은 '공천권'이라는 일종의 권력에서 나온다. 권력은 그 속성상 집중되게 마련이다. 대의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한계이자 현실이다. 수술실에 집도의가 한 명이고, 두 명의 판사가 동시에 판결을 내리지 않는 이치와 같다. 보수 정당의 역사를 보더라도 특정 세력이 공천권을 독점했을 때 총선에서 성공했다. 실제로 친이-친박이 상대면 '학살'까지 감행하면서 공천 작업의 주도권을 행사했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총선 성적표는 '원내 제1당'이었다. 반대

로 여당 소속이면서 대통령 탄핵에 찬성, 내부 권력에 반기를 든 세력이 등장했을 때는 큰 패배에 빠졌다.

이를 간파한 여권 입장에서 '이준석 파동'으로 비치는 당 내홍은 하루빨리 수습해야 할 대상이다. 더 이상 압박된 소리로 내부 갈등만 부채질한다면 지금의 의석수보다 더 쪼그라들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권력에 맞선 일부 여론 인사들로서는 자신들의 행보가 '시대적 소명'이나 '개혁'의 일부라고 반박할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그런 행보를 하기에 정부·여당이 갖고 있는 능력은 너무나 비천해 보인다. 당장의 끼니 때울 쌀도 없는데, 언제 먹을지 모를 고기 반찬 걱정하는 격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 시간 동안 점심을 같이한 지역 인사에 따르면 대통령의 가장 큰 고민은 국가부채 문제다.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이대로 가다 가는 나라 같긴 하지만 거덜 난다는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30%까지 상승한 조세부담률이 말해주듯 국민들의 고통 짜내기 현상은 심화됐으나 국가 경제는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안타깝지만 윤 대통령 입장에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과감한 경제 정책 시도는 불가능하다. 다음 총선에서 국회 권력을 회복하는 숙제는, 윤석열 정부가 이대로 절름발이 정권으로 마치고나갈 문제와 직결돼 보인다.

사설社說

경제성 없고 국내 산업 기반까지 흔든 文 '태양광 속도전'

문재인 정부 시절 전국 문체부 소관 기관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를 모두 회수하는 데 평균 44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는 설치비 회수에만 430년이 걸린다고 한다.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20~30년 안팎임을 고려한다면 설치비를 건지지 못하고 패널을 폐기해야 하는 곳이 태반이다.

문 정부는 탈(脫)원전 정책 일환으로 2020년 9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상 일정 규모 이상 정부·공공기관 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 설치하는 비율을 최대 40%까지 상향시켜 태양광 패널 설치를 독려했다. 하지만 건물 구조나 해당 지역 일조량 등을 체계적으로 계산하지 않아 안 그래도 낮은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을 더욱 떨어뜨렸다.

일각에서는 지금 당장은 적자를 보더라도 태양광 관련 설비 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 자회사(한국수력

원자력·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동서발전)가 투자한 태양광 발전 사업 설비의 상당수가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 정부의 무리한 '태양광 속도전'이 오히려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 기반을 약화시켰다는 지적도 많다.

태양광 발전 관련 부실·비리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2021~2022년 조사에서 불법·부당 사례가 2천267건, 부당 자금 지원은 2천616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추진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정교한 전략 없이, 오직 이념만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경제성은 물론이고 사업의 투명성, 국내 산업 기반까지 흔들고 말았다. 윤석열 정부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문 정부 신재생에너지' 밀어붙이기의 무모함과 그 결과를 반문교사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검찰과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감사해 국가 정책에 유착이나 비리·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인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라는 민주당의 '정치 구호'

국책 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라는 주장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법인세를 내리면 투자와 취업자 수가 늘고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다른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법인세율을 1%포인트(p) 내리면 국내총생산(GDP)이 단기적(1~2년 이내)으로 0.21% 늘고 장기적(3년 이상)으로 1.13% 오르는 효과가 생긴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계획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p 인하하면 GDP는 장·단기적으로 0.6~3.39%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인세 인하는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기 때문이다. 법인세를 1%p 낮추면 투자는 단기적으로 0.46%, 취업자 수는 0.13% 증가하며 장기적으로는 각각 2.56%와 0.74% 증가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반면 법인세를 올리면 그 피해는 근로자에게 돌아간다. 보고서는 한계세율이 20%에서 22%로 인상되면 임금은

0.2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 피해는 특히 시간제 근로자 같은 취약계층이나 사회복지 서비스업·운송업 등 노동집약 산업에서 더 클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법인세 인하는 재정적자를 늘릴 것이라 주장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반박한다. 정부안대로 법인세를 낮추면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줄지만 3년 이상 장기로 보면 세수 감소분 최대치 4조5천억 원의 3배인 13조 원이 매년 더 걷힌다는 것이다.

보고서가 분석한 법인세 인하 효과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검증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한때 47%에 달했던 법인세 평균 세율을 21.2%로 인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나. 법인세 인하는 국가적으로 더 이익임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는 재벌 등 대기업만 좋은 일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통념을 이용해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방침을 '부자 감세'라고 비난한다. 경제 문제를 순수한 경제 논리로 풀려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그대로 드러난다.

5년간 수도권 3% 성장할 때 대구경북은 마이너스 성장

지난 5년간 수도권이 연평균 3% 성장하는 동안 대구경북 경제는 역성장해 우려스럽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2016~2020년 대경권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은 -0.04%로 3.02%를 기록한 수도권과 큰 차이가 났다. 충청권(2.88%), 강원·제주권(1.69%), 호남권(1.58%)과 비교해도 격차가 컸다. 같은 기간 외국인 투자 건수의 경우 대경권이 63건으로 가장 적었던 반면 수도권은 1천 874건을 기록했다. 동남권(141건), 강원제주권(107건), 충청권(95건), 호남권(72건) 등 지방과 비교해서도 대경권이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

대구경북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지역만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산업 대전환은 자동차·기계·전자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 같은 산업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대구경북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지역 자동차 부품 산업을 세계적인 흐름인 친환경·자율주행 산업으로 전환해

야 한다. 기업과 지자체 간 협력이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다는 점은 빼아프다.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수출 활성화로 지역 경제를 살찌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제 위축 등의 원인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외국인 투자 유치가 어렵다면 국내 기업 투자 유치도 마찬가지다.

외국인 투자는 규제, 인력 등 여러 요인과 얽혀 있다.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비수도권을 포함해서도 외국인 투자가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은 절실하게 되새겨야 할 것이다. 외부 환경 탓을 하며 유지와 육성 의지 없이 자포자기하면 투자 유치는 요원하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과감한 규제 개선과 지역만의 인센티브를 제대로 갖췄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양질의 외국인 투자와 기존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노후한 산업 환경의 스마트화도 앞당겨야 한다.



야고부 野鼓賦

세상에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 앞 글자를 따면 '정·비·공'이다. 정답이 없고, 비밀이 없고, 공짜가 없다.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세상에 공짜가 없다'인 것 같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비판하면서 이 말을 끄집어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데 너무 이상적인 것을 많이 말씀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를 지난 대선 당시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받았던 자신의 기본 시리즈를 확대한 '기본사회'를 제안하고 나섰다.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소득·주거·금융·의료·복지·에너지·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 시스템을 바꿔 가야 한다"고 했다. 듣기에는 좋은 말이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연설에서 이 대표는 구체적 재원 마련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연간 50조 원이 넘는 기본소득 재원도 마련하지 못하는데 모든 분야에서 기본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조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공짜 소고기는 없다

기초연금 하나만 보자. 민주당은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을 발의했다. 지급 대상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서 65세 이상 전제로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정부도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임을 내세워 내년 상반기까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면 2030년 소요 예산은 약 52조 원으로, 지금보다 12조 원 늘어난다. 여기에다 인구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 막대한 재정 비용으로 납세자 부담은 가중할 수밖에 없다. 텅 빈 나라 같긴 하지만 채표만 얻어 보겠다는 포퓰리즘이란 지적이 안 나올 수 없다.

모든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돈을 살포하는 무상 복지 확대는 필연적으로 국가 부채 급증과 도덕적 해이를 낳기 마련이다.

어느 개그맨 유행어 중 '소는 누가 키우냐'가 있다. 지금 이 나라에선 소를 키울 사람은 없고 소를 잡아 나눠 주겠다는 정치인들과 포크를 들고 소고기를 기다리며 입맛을 다시는 사람들만 있다. 공짜 소고기는 이 세상에 없는데도 말이다.

이대현 논설실장 sky@maeil.com

청와대 관람 당일투어 다수날짜 확보 ₩40,000부터

대구 섬 문화탐방 & 국내문화체험 지정여행사

50년 전통의 대구대표여행사

서라벌여행사

053)423-0011 www.surabul.com

대구-제주 초특가항공권 판매

대구·부산출발 해외여행

부산출발	북큐슈 뱀부·유후인·후쿠오카 3월/4일	549,000원 부터
부산출발	오사카·교토·고베 3/4일	599,000원 부터
대구출발	베트남 다낭·호이안·후에 5/6일	599,000원 부터
대구출발	태국 방콕·파타야 5일/6일	699,000원 부터

골프특선

대구출발	태국 무제한 골프 5/6일	699,000원 부터
대구출발	베트남 다낭 골프 5/6일	1,249,000원 부터
대구출발	제주골프 2일/3일	699,000원 부터

대구 출발 제주도특선

특가	석조 제주 3박4일	269,000원 부터
품격	노팁/노음션 제주 3일	379,000원 부터
고품격	석조 제주도 + 카귀도 4일	199,000원 부터

정정 섬여행특선

울릉크루즈 2박3일	289,000원 부터
울릉크루즈 3박4일	339,000원 부터
홍도·옥산도 2일	309,000원 부터